

5월 31일 바다의 날

●바다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바다와 관련한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바다의 날'을 5월 31일로 정했어요.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고, 완도에서는 5월27일부터 31일까지를 장보고 축제 기간으로 정하여 장보고와 관련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해안 'beach'와 빗질을 의미하는 'combing'의 합성어로, 바닷가의 쓰레기를 줍는 행위인 **비치코밍(Beachcombing)**에 참여해보세요. 또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지속 가능한 어항이나 해양 생물원을 방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지역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 보세요. 우리 지역 해안의 해양 생물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바다의 아름다움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다의 날

우리나라에만 바다의 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은 7월 3째 주 월요일을 바다의 날로 정하고 특별히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바다 한 뼘 없는 남미의 내륙국가인 볼리비아가 3.23일을 바다의 날로 기념한다는 사실은 놀랍죠. 원래 볼리비아는 해양 국가였으나 1883년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해안을 빼앗겨 내륙국이 되고 말았어요. 볼리비아 국민들은 지금도 바다의 날에는 모두 잃어버린 바다를 기억하고 기필코 언젠가는 바다를 회복하리라는 다짐을 한다고 해요.

●바다의 날 가볼만한 곳

시화호 환경문화센터는 시화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화호 지역의 환경과 문화,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시화호는 1990년대에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인공호수이며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시화호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한때는 죽음의 호수라는 별명을 가졌을만큼 오염의 정도가 심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화호를 개방시킨 결과 해수와 민물이 순환하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담은 문화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